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영향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

박희서*

The Factors affecting on Internet Addition in Adolescence and how to deal with it - Focusing on Ecosystem Theory -

Park, Hwieseo*

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규명해 봄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즉,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체계,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인터넷 환경체계 등으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이었으며, 가정환경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의지지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학교환경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는 학업성적,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생활 적응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on adolescent internet addition and suggest how to deal with it. This study is based on the ecosystem theory for human development. The factors affecting on adolescent internet addition are the followings: First, self-efficacy, self-esteem and self-control affect on internet addiction in individual system. Second, the affecting factors concerned with home environmental system are the communication level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 parents' attitude for bringing up, parents' control level for adolescent, parents support etc. Third, the affecting factors concerned with school environmental system academic score, friends' support, teacher's support, adolescent adaptation in school life etc. This study suggest how to deal with internet addi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 제1저자 : 박희서

• 투고일 : 2010. 07. 06, 심사일 : 2010. 07. 07, 게재확정일 : 2010. 07. 12.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 이 논문은 200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 Keyword :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생태체계이론(ecosystem theory), 개인체계(individual system), 가정환경체계(home environmental system), 학교환경체계(school environmental factor)

I. 서론

인터넷은 우리 생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의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부정적인 측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09년 인터넷 중독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인터넷 중독률은 8.5%(191만 3000명)로 나타났으며, 이중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2.8%(93만 8000명)로 성인보다 두 배 가깝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들 청소년들은 인터넷 특히 온라인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한 나머지 자기조절력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신체적 증상을 비롯한 가정과 학교생활의 어려움, 비행문제,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청소년들은 음란물 접속을 바탕으로 성폭력이나 성폭행과 같은 비행행동을 일으키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정립되어 가는 시기로,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진단기준에 관한 연구, 인터넷 중독의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 중독의 결과에 관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 중독과 같은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관해서는 개인적 특성과 가정환경 요인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학교, 사회환경 등 구조적 배경을 고려하여 전체 환경 맥락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특히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단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 통합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과 관련하여 생태학적 관점은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은 인간이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실체이며, 환경은 인접환경 뿐만 아니라 더 큰 맥락까지 포함하며, 인간과 환경은 상호작용 관계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인간발달 연구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생태체계는 유기체의 정상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유기체의 이상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체계적 관점은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규명해 보는 유용한 관점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규명해 보고, 이들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경험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경험적 검증을 거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이해

2.1.1. 청소년기의 특징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성인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있는 청소년은 지적·정서적·신체적 제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숙해 가는 과도기에 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생리적 변화와 함께 심리·사회적 발달도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탐색을 할 수 있게 되며, 구체적인 사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연역적, 가설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 후기에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사고수준이 점차 성숙한 수준에 이르게 되며, 성충동의 급격한 증가로 정서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는 불안감과 과민성이 증대되어 심리적 긴장감이 수반된다. 또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는 어떻게 연결되며 자신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시련과 아픔을 통해 정체감을 확립하여 나간다.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대인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즉,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특히, 친구들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며 부모나 교사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배타적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23].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진보적이고 개방적이지만 기성세대는 보수적이고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어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여러 가지 중독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원하기 때문

에 부모가 모르는 자기만의 공간인 인터넷 공간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이 자신의 좌절감을 해소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 인터넷 중독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16].

2.1.2.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 사용이 급증되면서 나타난 인터넷 역기능의 하나이다.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김청택 등(2002)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을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과 금단,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일탈행동 및 현실구분 장애, 가상적인 대인관계 지향성으로 요약하였다[5]. 그러므로 인터넷 중독은 도박, 알코올 중독과 같이 현실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인지적,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 생활에 명백히 방해가 되는 장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대한 지나친 반복 사용으로 인하여 내성과 금단 증상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심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장시간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리적 불안감, 우울증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인터넷의 이용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제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 중독은 중독대상에 따라 게임중독, 통신중독, 음란물 중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이란 이러한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중독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학교도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부모와 대립하기도 하며, 현실에서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밤새워 게임을 하고 낮에 졸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며, 대인기피증, 강박감, 편집증, 체력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 건전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며,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게 된다.

둘째, 통신중독은 이용자가 대화방, 머드게임 등을 지나치게 즐겨 현실도피 수단으로 사이버 공간에 빠져드는 것을 말한다. 통신상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대감 등으로 인하여 통신에 집착한 결과 통신중독에 이르게 된다. 통신중독의 결과 자기 통제력의 상실, 사용량의 증가, 일상생활의 부적응, 감정조절 능력의 감소, 대인관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음란물 중독은 청소년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중

독현상이다. 청소년기에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중독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음란물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밤새도록 음란물을 보고 낮에 졸거나, 부모와 대립하기도 한다. 또한 죄의식으로 결벽증에 걸리거나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음란물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며 모방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게 된다[21].

2.1.3.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

인터넷 중독의 진단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소 의견이 다르다. Goldberg 등(1996)은 내성, 금단증상을 비롯하여 인터넷에 대한 생리적 의존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의 진단 기준을 제시하여 인터넷 중독 연구의 시발점이 되었다[2]. 이후 Young(1996)은 병적 도박의 진단기준을 원용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별도의 진단기준을 만들었다. Young은 인터넷 중독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용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대인관계, 직장과 학교생활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29]. Young이 제시한 진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1][32].

첫째, 의존성으로, 이것은 인터넷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 등을 느끼게 되고, 불쾌한 기분을 갖게 되었을 때도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내성으로,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컴퓨터를 끄고 빠져 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말한다. 셋째, 금단 현상으로, 이것은 항상 통신상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서 어떤 전자메일이 왔는지 궁금해 하고, 컴퓨터 앞에 앉는 순간 긴장이 해소되는 현상이다. 넷째, 신체적인 문제로, 수면 부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되고, 눈의 피로, 두통, 목이나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다섯째, 학업/직업적인 문제로, 학업이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흥미를 상실하게 되는 현상이다. 여섯째, 가족문제,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가족모임에 자주 참여하지 못하며, 가족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일곱째, 사회적인 문제로, 이것은 직접 대면하는 모임활동을 기피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Young이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한 20개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총합이 50점에서 79점까지는 경미한 중독수준으로 보았고, 80점 이상은 심각한 중독수준으로 보고 있다[31].

2.2. 생태체계이론

2.2.1. 생태체계이론의 주요내용

생태체계이론은 인간이 어떻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서, 인간생활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차원적 접근을 시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생태체계이론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둘러싼 환경체계 간 복잡한 상호작용적 체계에 대해 연구한다. 유기체와 외부세계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은 생태체계이론의 핵심으로, 생태체계이론은 인간의 특정 행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다[27].

Bronfenbrenne(1979)은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어 환경의 복합적인 체계를 강조하고,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기능으로 정의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생태적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나누었다[11][27].

첫째, 미시체계는 생태학적 환경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는 체계로, 성장하는 개체와 그 개체를 포괄하고 있는 인접환경이 맺고 있는 복합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미시체계는 개인의 성장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체계로, 가족, 학교, 운동팀, 동아리, 또래집단, 교회, 이웃 사람들을 들 수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들과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 및 상호 교류를 갖는다. 이러한 미시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형제와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 미시체계 중 매우 중요한 이원체계로 설명되었다.

둘째, 중간체계는 서로 연결된 미시체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 한 사람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하게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망으로 구성된 가정과 학교간의 관계, 가정과 동료집단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가정의 경험이 학교행동에 미치는 것, 또래간의 사회성과 학교 성적과의 관련성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등을 말한다.

셋째, 외체계는 중간체계가 확장된 것으로써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가정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직장 등이 이에 속한다. 외체계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회의 주요 기관 즉, 부모의 직업환경, 근무조건, 이웃, 정부기관, 비형식적인 사회 관계망 등이다.

넷째, 거시체계는 사회경제와 정치체계, 대중매체와 같은 영향을 포함하는 거대한 체계이다. 거시체계의 예로는 사회와 문화이념, 가치, 법률, 규칙, 법집 등과 같이 명백한 형태를 지닌 것도 있으나 구성원들의 정신세계에 내재된 관습과 습관으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인 경우가 많다. 거시체계에서 가지는 시대정신이나 풍토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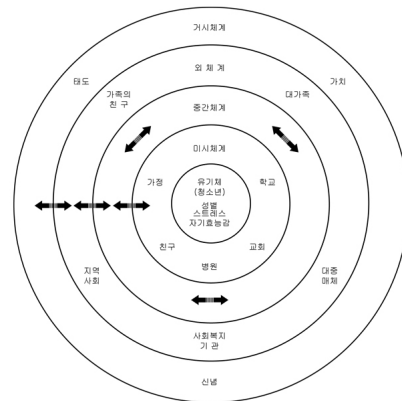


그림 1.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모형
Fig. 1 Bronfenbrenner's Ecology Model for Human Development

2.2.2. 생태체계이론의 유용성

생태체계적 관점은 많은 학문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이론으로, 아동·청소년문제나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회현상들에 대해 유용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문제의 경우, 문제의 한 단면이나 증상만을 보지 말고 다중체계를 고려하여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30]. 생태체계적 관점은 청소년기 발달의 영향요인들에 대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개인적 측면만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지역 사회환경 등 다양한 환경체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태체계이론은 인터넷 중독과 같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청소년기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환경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I.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3.1. 개인체계

첫째, 자기효능감(self-efficacy)로, 이것은 개인이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이 강하면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는 반면, 자기효능감이 약하면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하고 쉽게 포기해 버린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는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5). 이정연과 그의 동료(2002)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몰입하는 경향은 조절될 것이라고 하였다(14)(28).

둘째, 자아존중감(self-esteem)으로, 이것은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로운 존재, 다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 권리를 가진 독특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응이나 정신적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5)(13). 이것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현실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도피하는데서 비롯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기통제력(self-control)으로,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낮게 나타났다(13). 이것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은 더 큰 만족을 위해 욕구를 참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충동적이어서 인터넷에 중독되기 쉬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3.2. 가정환경체계

첫째,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이다.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13)(24).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18).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비합리적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적대적으로 인식할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17). 반면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고 수평적일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9). 따라서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7).

셋째, 부모의 감독수준이다. 부모의 돌봄의 시간이 부족하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즉, 부모가 방치하여 자녀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빠져들어 중독에 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통제가 심할수

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24).

넷째, 부모의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족의 지지가 약할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5).

3.3. 학교환경체계

첫째, 학업성적이다. 학업성적이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8)(16). 이는 학업성적에서 실패할 경우, 가상현실로 도피를 위해 인터넷 중독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친구의 지지이다. 친구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낮지만 친구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16). 이는 친구관계에서 실패할 경우 가상현실로 도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교사의 지지이다. 교사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낮지만 교사의 지지가 낮은 경우에는 인터넷 중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

넷째, 학교생활 적응으로 교사와 관계, 교우관계, 수업에의 적응, 학교규칙에의 적응 등이 인터넷 중독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3.4. 인터넷 환경체계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껴 사회적인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9).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은 인터넷 중독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현실지각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고 중독 가능성이 높다(25) 그리고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수록, 자기 방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수록, 정보보다 오락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24).

IV.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 주체들의 한계

첫째, 가정의 한계이다. 부모세대는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가 아니어서 게임에 대한 정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심각성이나 유해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사전에 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면서 대화가 부족해지고 자신의 자

너가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모가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인터넷 중독이 되고 나서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대처방안에 대해 모르는 실정이다.

둘째, 학교의 한계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게 되었으며, 교육회수는 학교재량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 상담가는 없으며 전체 상담사나 교육받은 교사가 상담하게 되어 있으나 의뢰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인지도 조사에서 388명(74.6%)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20).

셋째, 지역사회 한계이다. 지역의료기관은 인터넷 중독자를 치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나, 인터넷 중독에 대한 의료인들의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 축적이 초기단계 수준이다. 또 PC방의 경우 미성년자의 출입이 크게 제한받지 않고 있으며, 그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한 편이며 자제력이 부족한 자녀들이 부모 몰래 이용하고 있어 PC방이 탈선의 온실이 되고 있다.

넷째, 정부의 한계이다. 인터넷 중독에 관련된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으나, 이들 정부부처들의 기능은 중복된 경우가 있으며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 정부부처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통합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경우 정보화에는 관심이 있으나 정보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정보문화 프로그램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대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격차 해소에 치중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정보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거의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0).

V.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생태체계적 대처방안

5.1. 개인체계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및 자기통제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인정해 주고 청소년의 생각에 공감해 줌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자기통제 능력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자기통제 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하고, 컴퓨터를 거실과 같이

공개된 위치에 둬으로써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통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중독 치료교육에 참여하는 방법은 자기통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2. 가정환경체계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떠한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다. 신앙가족이라면 가족 예배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말시간에 별도로 가족대화시간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인터넷 게임 등에 대해 배워 알아야 자녀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 자녀들이 인터넷 게임 등에 몰입하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 부모의 이해가 선행될 경우 비로소 부모-자녀 간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통제가 너무 심하면 부모-자녀 간 불신감만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부모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 보다는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가시간을 인터넷 대신 체육활동과 같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의 관심을 가상공간으로부터 현실세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

5.3. 학교환경체계

첫째, 친구의 지지를 높여나가야 한다. 청소년기는 또래친구들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건전한 친구관계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아리 활동과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교사와 관계를 긍정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야 한다. 만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에게 알리고 상담전문가와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사회복지사나 상담전문가를 활성화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용패턴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고, 시간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신의 목표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언해 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5.4.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청소년 개인이나 가정 뿐만 아니라 국가,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 수준과 지역적 차원, 국가적 차원 등 다양한 수준의 정책과 제도정비 및 공·사간 거버넌스 체제를 망라한 범국가적 대응체계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첫째,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상담, 학생관찰 및 상담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 각종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학교와 정부 관계에 있어서는 학교의 인터넷 중독 대응활동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에 있어서는 청소년 인터넷 관련 부서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하도록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홍보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와 지역사회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청소년 보호 체계 형성을 위해 법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도출해 보고, 그 영향요인들을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크게 개인체계,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인터넷 환경체제로 나누어 고찰하였고, 이들 요인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체계요인과 관련하여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가정환경체계요인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 부모-자녀간 원활한 의사소통, 컴퓨터 활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학교환경체계와 관련하여 친구지지와 교사의 지지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 적응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넷째,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본 연구는 그 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상황변수를 도입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강만철, 오익수,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 (II)," 교육심리연구, 16(4) : 247-274, 2002.
- [2] 권준수, "인터넷 중독증," 대한의사협회지, 42(8), 1999.
- [3] 김동욱, "인터넷 이용충족, 플로우 및 개인적 성향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논문, 2001.
- [4] 김정열, 이성진, "사회심리적 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 14권, 제 12호, 2009년
- [5] 김청택, 김동일, 박종규, 이수진, "한국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
- [6] 김효순, "청소년기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7] 박부진, "정보사회의 가족문화," 여성가족생활연구논총, 6권 2000.
- [8] 박정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변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9] 백미영,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인터넷 중독,"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0] 송희준외 6인, "정보문화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9.
- [11] 엄영옥, "생태체계이론으로 개입한 단일사례연구," 한국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 [12] 윤영민,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보호위원회 2차 정책포럼, 2000.
- [13] 이계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14] 이정연, 최영선,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 11권, 제 4호, 2002.
- [15] 이해경,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게임 중독을 예

측하는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4), 2002.

[16] 장재홍, 유정이, 권해수, 김형수, 최한나,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

[17] 정민희,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관련변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18] 조아미, “청소년 PC중독의 이해와 청소년 PC중독의 유형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19] 조춘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0] 국정정보문화진흥원, “2008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정보통신부, 2009.

[21]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의 PC 중독증,”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2000..

[22] 한복희,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 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3] 한상철, “청소년의 인터넷 접촉 정도와 중독성향에 대한 조사,” 사회문제, 한국심리학회, 2권, 19-39. 2003.

[24] 홍경희,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5] 홍윤진, “자기효능감과 가상공간에서의 현실지각수준이 인터넷 몰입과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6] 디지털 타임스,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51802011860634001 2010년 5월 10일.

[27]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MA: Havard University Press. 1979.

[28] Chen, G., Gully, M.S. and D. Elden,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Vol. 4, No. 1, 2001.

[29] Griffiths, M., “Psychology of computer use : XL III. some comments i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80, 81-82, 1997.

[30] Pecora, J. P. Whittaker, J.K. Maluccio, A. N. Barth, R. P.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64-77, 2000.

[31]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MI 99, 1999.

[32] Young, K.S., “Internet Addiction : A New Clinical Phenomenon and Its Consequenc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ol. 48, Dec. 2004..

저 자 소 개



박 희 서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1989년~현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지식정부론, 마케팅, 정책학